

기아차 광주공장, 카렌스 이달 내 단산



기아자동차가 광주공장에서 생산해 온 초소형 미니밴 '카렌스' 생산을 이달 내 종료한다.

23일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제품군 재편을 위해 카렌스 생산이 7월 내로 중단된다.

카렌스 단산 결정은 지난 1999년 첫 출시 이후 20년만이며, 광주공장 생산 종료는 2008년 6월 경기도 화

성공장 생산라인이 광주로 이관된 지 14년 만이다.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카렌스는 IMF의환위기 당시인 지난 1999년 처음으로 출시돼 유틸리티에 민감한 소비자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카스타, 카니발과 함께 '제2의 봉고 신화'를 썼던 차종이다.

제품군 재편 위해 출시 20년만에 단산 결정 판매 비중 높지 않아 전체 생산 대수 영향無

광주공장에서는 지난 2004년 6월부터 시작해 단산 결정이 내려진 최근까지 총 127만1439대(내수 24만2088대·수출 103만2306대)의 카렌스가 생산됐다.

모델별로는 1세대 카렌스는 총 63만1719대(내수 121만44대·수출 51만6153대)가 양산됐다.

이후 2006년 4월부터 생산을 개시한 '2세대 뉴 카렌스'는 총 42만1788대(내수 9만795대·수출 32만3993대)가 생산됐다.

최근 단종된 최신 모델 '올 뉴 카렌스'는 2013년 3월부터 생산을 시작해 총 21만5409대(내수 2만2249대·수출19만3160대)가 양산됐다.

모델별 생산 추이를 살펴보면 LPG 연료 가격이 단계적으로 계속 오르기 시작한 2006년부터는 경제성 저하로 국내 수요 보다는 수출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수요 저조는 LPG 연료 가격 상승 탓도 있지만 '디젤 SUV' 차량이 대거 출시되면서 소비가 대형 SUV 차종으로 분산되기 시작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올 상반기 카렌스는 1155대를 판매하는 데 그치며 기아차 전체 제품군 가운데 가장 낮은 판매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렌스 단산으로 기아차 광주공장 생산 차종은 7종에서 쏘울, 쏘울 EV, 스포티지, 봉고 트러, 대형버스 군용차 등 6종으로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카렌스가 차지하는 판매 비중이 높지 않아 전체 생산 대수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아차는 카렌스 후속으로 소형 SUV(개발명 'SP2')를 생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유례없는 폭염에 농산물 수급 '비상'

농식품부, 폭염 대비 농축산물 수급안정 대책 추진

유례 없는 폭염의 여파가 식탁 물가까지 덮치자 정부가 비상 대응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폭염에 따른 농산물 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5일부터 가뭄 한 농업재해대책상황실과 별도로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비상태스크포스(TF)를 설치·운영한다.

폭염 장기화로 농가 피해가 커지고 일부 농축산물의 수급 악화가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김경욱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폭염으로 배추·무 등 일부 노지채소 가격이 상승했지만 현재까지 그 외 품목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향후 고온 장기화 시 농축산물의 공급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폐사한 가축은 110만 마리 넘는다. 현재 폭염에 따른 피해 규모는 전체 사육마릿수 대비 돼지 0.07%, 닭 0.62%, 오리 0.44% 수준이다.

이달 중순 기준으로 돼지고기는 1kg당 5355원으로 평년보다 10.1%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닭고기(산지)는 1kg당 1500원으로 이달 상순의 1313원보다 14.2%, 계란(산지)은 10개당 819원으로 이달 상순의 676원보다 21.2% 각각 높다.

이에 정부는 지난 18일 '이상기상 대응 매뉴얼'에 따라 배추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배추 수급안정 TF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뒤인 20일 첫 회의를 연 데 이어 주 2회 회의를 열어 수급 대책을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작황·수급 상황 변화를 신속·정확하게 모니터링 하기 위해 현지에 상주하는 산지지원단을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수급불안 예측 시 관측 속보를 발행해 정보를 전파한다.

폭막별로는 배추·무 등 밥상 물가과 관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 조절 물량을 탄력적으로 방출한다.

특히 고온에 민감한 배추의 경우 '이상기상 대응 매뉴얼'에 따라 지난 18일 '경계경보'가 발령된 상태다.

고랭지 배추 주산지인 강원 지역에서 이달 상순에 많은 비가 내린데다 폭염으로 중·하순 출하지역에서 무름병이 발생하면서 가격이 1포기당 2632원까지 올랐다. 이달 상순의 1828원보다 45.1%, 평년보다는 27.9% 각각 높은 가격이다.

무는 노지 분산형이 주로 출하되고 있지만 재배면적 감소에 폭염으로 작황까지 악화되면서 출하량이 더욱 줄면서 가격이 1개당 1450원으로 뛰었다. 이달 상순의 1128원보다 28.7%, 평년보다는 43.7% 높다.

축산물은 통상 여름철 휴가와 보양식 특수로 수요가 늘어난다. 여기에 폭염을 견디지 못하고 가축 폐사량이 늘면서 일부 품목(닭고기·계란)의 수급에 빨간 불이 켜졌다.

이달 상순까지 평년 수준의 가격 이던 노지채소가 중순부터 크게 오르는 추세다.

특히 고온에 민감한 배추의 경우 '이상기상 대응 매뉴얼'에 따라 지난 18일 '경계경보'가 발령된 상태다.

고랭지 배추 주산지인 강원 지역에서 이달 상순에 많은 비가 내린데다 폭염으로 중·하순 출하지역에서 무름병이 발생하면서 가격이 1포기당 2632원까지 올랐다. 이달 상순의 1828원보다 45.1%, 평년보다는 27.9% 각각 높은 가격이다.

무는 노지 분산형이 주로 출하되고 있지만 재배면적 감소에 폭염으로 작황까지 악화되면서 출하량이 더욱 줄면서 가격이 1개당 1450원으로 뛰었다. 이달 상순의 1128원보다 28.7%, 평년보다는 43.7% 높다.

축산물은 통상 여름철 휴가와 보양식 특수로 수요가 늘어난다. 여기에 폭염을 견디지 못하고 가축 폐사량이 늘면서 일부 품목(닭고기·계란)의 수급에 빨간 불이 켜졌다.

과재·과일도 가격 상승 품목 중심으로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농협 계통 매장과 공영홈쇼핑을 활용한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돼지고기는 비산호 부위 소비 촉진 캠페인과 한돈물 비강스 기획진행인판매를, 계란은 농협지역본부 소비촉진행사를 각각 실시한다.

정부는 또 농산물유통정보시스템(KAMIS)을 통해 폭막별 출하 및 가격동향, 직거래장터 등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소비자 부담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폭염 장기화 전망에 따라 관계시장이 갖춰지지 않은 발 중심으로 관영 개찰, 간이 급수시설 설치, 살수차 운영 등의 급수 대책 비용도 긴급 지원한다.

뉴스

로또 당첨금 20억원...내달까지 주인 안 나오면 '소멸'

1등 당첨금 찾아가세요
1등 당첨금 : 1,930,760,042원

2등 당첨금 찾아가세요
2등 당첨금 : 52,657,093원

지난해 8월26일 추첨 제769회차 1등·2등

약 20억원에 이르는 로또 당첨금이 당첨자를 만나지 못해 곧 소멸될 예정이다.

23일 복권통합수탁사업자인 나눔로또에 따르면 지난해 8월26일 추첨된 제 769회차 1등과 2등 미수령 당첨금 19억 8342만원의 지급기한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1등 미수령 금액은 19억 3076만원이다. 당첨번호는 5, 7, 11, 16, 41, 45이며, 당첨지는 전북 익산시 영등동의 복권판매점에서 해당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2등의 미수령 금액은 5266만원

으로 당첨번호는 5, 7, 11, 16, 41, 45에 보너스 번호 4가 포함된다. 복권 구입 장소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영월동의 복권판매점으로 전해졌다.

로또 당첨금의 소멸시효는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20여억원의 당첨금은 다음 달 27일이 지급 만료기한이다.

만약 만료기한이 지나면 해당 금액은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이후 문화재 보호사업,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 장애인·유공자·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 등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오비맥주, 글로벌 특허 '프레시 탭' 500ml 카스 캔에 적용

오비맥주는 국내 맥주업계 최초로 캔 맥주를 훨씬 더 편리하게 따를 수 있는 '프레시 탭(Fresh Tab)' 기술을 카스 후레쉬 500ml 캔 제품 전체에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비맥주의 글로벌 분사인 AB인 베브가 보유한 특허 기술로 일반 캔과 달리 캔 상단에 별도의 작은 숨구멍(벤트 홀)을 특수 설계해 음용시 공기 저항을 줄여주는 장치다.

캔을 개봉한 후 뒤쪽에 위치한 작은 탭을 한 번 더 눌러주면 공기

순환을 도와주는 작은 환기구가 열리고 이를 통해 맥주의 흐름이 원활해져 일반 캔맥주와 차별화된 음용감을 준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오비맥주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카스 후레쉬 500ml 캔 제품 전체에 프레시 탭 기술을 적용키로 했다. 앞서 지난해 7월 같은 기술을 적용한 355ml 카스 캔 제품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대형마트에 시범적으로 선보인 바 있다. 또 프레시 탭에는 기존 캔 뚜껑보다 7.4% 가벼

운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했다.

프레시 탭이 적용된 카스 500ml 캔 제품은 오는 26일부터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가격은 기존 500ml 캔 제품과 동일하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각종 야외 활동이 늘어 간편한 캔 맥주를 많이 찾게 되는 여름, 소비자들이 더욱 쉽고 재미있게 카스 맥주를 즐길 수 있도록 프레시 탭을 500ml 캔 맥주 전체에 적용하게 됐다"며 "수입맥주의 공세가 거세지는 국내 맥주시장



에서 카스만의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는 혁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